

## 웅장한 파도 풍성한 해산물...650명 사는 완도 최고 어촌

신지면 동쪽 끝에 자리 ... 완도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  
사람이 뿌리고 바다가 낚아 하늘이 기르는 양식업 중점  
1.5km 펼쳐진 풍광 좋은 해변 명사십리 부럽지 않아

### 찾아오시는 길

완도 동고마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 1251)

#### ▶ 승용차

한남 IC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동서전분기점) → 서영암IC  
→ 영풍교차로(월출산, 성전방면) →  
신제교차로(독천방면) → 해남교차로  
(완도, 해남방면) → 신지대교 → 몰하

태교차로(신지면사무소 방면)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완도공용버  
스터미널 → 장용-완도 농어촌버스  
(약 50분) → 동고리정류장 하차(도보  
1분)

동고마을은 제법 규모가 큰 동네다. 마  
을 어르신들에 따르면 완도에서는 단일 마  
을로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300여 가  
구에 6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어촌계  
인구수는 약 200여 명에 이른다. 농공단지  
가 있는 축척리 다음으로 세(勢)가 크다고  
한다.

신지면 동부 일대에서는 가장 큰데다  
동쪽 끝에 자리한다. 마을을 떠받치고 있  
는 지세는 완만하게 뻗어 있다. 해발 151  
m인 범산은 남동쪽으로 뻗어 노적봉을  
이루고 그것의 뒷산자락은 동쪽으로 내  
달려 기선봉(141m)을 떠받든다. 또 한 봉  
우리는 동촌리를 넘어 가인재를 타고 동  
두머리에서 멈춰 있다. 해안을 둘러치듯  
마을을 감싼 산세는 유순하기 이를 데 없  
어 그저 바라보는 것으로 마음이 아늑해  
진다.

동고마을의 인상은 어느 어촌마을과 유  
사하지만, 그러나 이곳만의 특색이 있다.  
바로 파도소리다. 깊고도 웅장해 자못 바  
다의 위엄이 느껴진다. 잔물결일때도 파도  
가 연출해내는 소리는 원시적이면서도 목  
직하다. 바닷물은 포물선을 이룬 해변의  
끝자락까지 밀려와 서서히 사라진다. 산  
화하듯 소멸하는 파도는 쓸쓸하면서도 가  
엷다.

이 마을은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  
동고(東古) 마을에 사람이 입향(入鄕)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초쯤으로 짐작된다. 마  
을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정중섭(82) 어르  
신이 말하는 마을의 유래는 이렇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청주  
한씨가 이곳 지형이 좋아 처음으로 입주했  
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반대편 쪽에  
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  
다. 겨울을 재촉해 그곳에 가보니 차씨라  
는 성을 가진 이가 읍막을 짓고 살고 있었  
던 거예요.”

어르신의 말은 이곳 지세가 좋아 한씨와  
차씨가 들어와 살면서 점차 마을이 형성되  
었다는 것이다.

일설에는 스님과 동자승과 관련된 이야  
기도 전해온다.

오랜 옛날 불심이 깊은 스님이 거처할  
곳을 찾아 산천을 유람하는 중이었다. 그  
의 결에는 동자승이 한 명 있었다. 스님이  
동고리에 당도해 야트막한 뒷산에 올라 보  
니 풍경이 너무 맘에 들었다. 잔잔히 펼쳐  
진 바다와 확 트인 해변은 복잡한 심사를  
풀어주었다. “드디어 내가 기거할 곳을 찾  
았구나.” 스님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이곳에 터를 잡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시  
간이 흐른 후 동자승은 따로 기거하도록  
동쪽 끝에 거처를 마련해준다.

동고라는 마을 이름이 유래된 내력이  
다. 동고는 예전에는 ‘동고지’로도 불리었  
다. 2008년 신지면에서 발행한 향토지 ‘완

도신지’에는 마을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  
력이 나온다.

“당초 신지도의 동쪽 끝 마을이라 하여  
동간지라 부르다가 동쪽 산지에 있는 마을  
이라 하여 1789년 동산리(東山里)라 하였  
고, 동하리(東下里)와 합하여 동구지라고  
불렀다. 1912년 행정구역명칭일람에 동고  
지(東古地)라 했으며, 1917년 전도부군면  
리동명칭일람에 동고리로 명명했다.”

마을의 안쪽에는 곶술숲과 백사장이 자  
리한다. 해변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  
에는 바다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이 조  
성돼 있다. 이곳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름  
드리 해송이 도열하듯 늘어서 있다. 300여  
그루의 해송은 바람 차단막뿐 아니라, 그  
자체로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불어  
오는 바람 탓에 해송은 하나같이 뒤뉘어  
져 있다.

“우리 마을 해변은 대략 1.5km 정도 됩  
니다.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명성에 가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름이면 외지인  
들이 많이 찾아오지요.”

차용석(64) 이장의 말이다. 또한 그는  
“우리 마을에는 경지도 경치지만 해조  
류, 해산물 등 안 나는 게 없을 만큼 다양  
한 수산물이 생산된다”며 자부심을 드러  
냈다.

동고마을의 특산물은 툇과 다시마다.  
10월 중순경 툇 포자를 가져와 바다에 이  
식하면 12월 중순 이후로 나물 툇을 채취  
할 수 있다. 툇의 효능이 좋다고 알려지면  
서 최근에는 중국에서 값싼 마른 툇이 대  
량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적잖은 타격이다.  
그러나 동고마을 건트는 전량 일본으로 수  
출할 만큼 품질이 좋다고 한다.

또한 동고마을에서는 다시마, 미역도 많  
이 생산된다. 청정한 해역이어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상품가치가 높다. 웅  
장하게 밀려오는 파도 아래 풍성한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바다에 있는 산물은 그저 산물일  
뿐이라고. 양식장 산물은 수확해 판매가  
돼야 비로소 돈이 된다고. 지당한 말임에  
도 어촌에서의 말은 예사로 들리지 않는  
다.

하늘이 부조를 하지 않으면 바다의 양식  
장은 하나의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 풍경  
과 삶은 서로 다른 실체다. 사람이 뿌리고  
바다가 낚아 하늘이 기르는 것이 양식이  
다. 변별되는 것 같지만 삶과 풍경은 그러  
나 한가지로 동일하다. 生景不二, 그 경계  
위에서 꽃이 핀다.

이 푸르고 아름다운 해변에서 가을이 시  
나브로 익어간다. 울 가을 동고마을의 툇  
과 다시마와 다양한 산물이 우리들의 식탁  
에 오를 날을 기대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동고마을을 감싼 부드러운 산세와 1.5km에 이르는 해변은 보는 이에게 아늑함을 선사한다. 드론으로 촬영한 동고마을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00여 그루의 해송이 우거진 숲숲은 바람을 차단할 뿐 아니라 이색적인 풍경을 연출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동고리 특산물

청정 바다 툇·다시마·미역

값 조금 비싸지만 품질 최고

동고마을은 청정해역인 완도군 신지면  
에 위치해있어 특산물인 툇이 깨끗하고  
품질이 좋아 다른 지역보다 생산 원가가  
비싸 좋은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고  
마을주민들은 말한다. 동고리마을 툇은 5  
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채취하고 있으며  
건툇은 품질이 아주 좋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고리마을  
툇은 갈슘, 요오드, 철 등의 무기염류가 다  
른 지역 툇보다 높기 때문에 발육성장, 골  
다공증 예방 및 변비에방 효능이 높아 전  
국에서 많이 찾고 있으며 다시마, 미역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

특산물 구매 문의 : 오기육 완도 동고  
리마을 어촌계장 010-4556-7925

## “어촌 체험과 연계한 2·3차 산업에 마을의 미래 달려있어요”

### 오기육 어촌계장

“우리 마을의 미래는 어촌 체험과 연계  
한 2차, 3차 산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토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나 도의 지원만 된다면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요.”

오기육(55) 동고마을 어촌계장은 판매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  
다. 해산물을 팔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느냐  
의 여부가 어가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다. 당연한 말인데, 그의 말이  
절실히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마을의 중요

한 현안이기 때문일 터다.

“외지에서 살다 귀여한지 12년 정도 됐  
습니다. 서울 동대문에서 패션물 유통도  
했고 이곳 완도에서도 했지요.”

오 계장은 이곳이 고향이다. 한때는 도  
시에서 바쁘게 살았지만 내 고향이 좋아  
귀어를 했다. 도시에서 생활했던 경험은  
비록 바다생활과는 거리가 있지만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郷심이  
깊어 보였다. 미래를 내다볼 때 마을에서  
주력하는 품종 변경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수운이 높아지거나 수질이 악화되면 지금  
과 같은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 계장은 마을로 피서를 오는 외지인들  
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동  
고마을 해변과 풍광이 좋아 찾아오는 것  
은 좋지만 거주하는 마을 주민을 배려했  
으면 한다.

“피서객들이 낚시를 하고 잡은 물고기  
내장을 따서 아무 곳이나 버리는 일은 없  
었으면 합니다. 외지인들은 한 번 왔다 가  
면 되지만 주민들에게는 중요한 터전이자  
생업의 현장이니까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



# 다도해 비경에 황홀한 낙조... 힐링휴가지로 딱이네



지난 8일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 물양장 주변에 크고 작은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드론으로 상공에서 찍은 청룡마을 앞바다 전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드넓은 가을 하늘에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는 한없는 위안과 휴식을 안겨준다. 수평선 너머로 곧게 뻗은 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야산에 올라 병풍처럼 둘러쳐진 울창한 울림을 한눈에 내려다보면 막혔던 속은 뽕 뚫리고 세상사에 주름진 마음도 곧게 펴질 것이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 앞바다는 시름을 달래면서 마음의 위안을 찾기에 안성맞춤인 마을이다. 청룡마을은 가자미·농어·전복 등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먹을거리도 풍성, 전남 도내 섬 지역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32가구가 모여 사는 청룡마을은 신안군과 접경지역이다. 사방신(四方神) 중 청룡이 지켜주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마을 이름이 청룡마을이다. 진도 청룡마을 앞바다엔 손가락 발가락섬인 양덕도·저도·가사도·가사혈도·광대도·주지미 등 크고 작은 유·무인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내년부터 청룡마을 앞바다에서 출발, 양덕도·저도·사자도·가사혈도 등 8개 섬을 거쳐 되돌아오는 관광선 운행이 재기될 전망이다. 이 관광선이 운행된다면 서남

## 32가구 100여명 거주

## 내년부터 섬 관광선 운행

## 앞바다는 국내 3대 냉수대

## 개매기 체험 年 1만명 찾아

해 면바다를 가지 않고도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기이하고 신비로운 풍광을 해상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신안과 접경지역인 청룡마을 앞바다는 냉수대지역이다. 국내에서 냉수대는 진도 해역과 충남 태안, 인천 백령도 해역 등 세 곳이다. 그 가운데서도 진도해역이 여름철 수온이 섭씨 23도를 넘지 않는 등 가장 낫다. 더운 여름철에도 수온이 23도를 넘지 않아 어류폐사는 물론 적조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청룡마을 어민들이 잡은 가자미를 ‘서촌(서쪽 마을어촌) 가자미’라고 부른다. 전국 어시장에선 ‘서촌가자미’라고 하면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지갑을 열 정도다.

가자미는 물론 농어·전복(양식)·다시마(양식) 등은 다른 지역의 해산물보다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단맛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냉수대인데다, 개펄이 풍부하고 깨끗한 친환경지대이기 때문이다.

청룡마을의 또 다른 재미는 마을 뒷산 산책로다. 야트막한 산이라고 얕잡아 봤다간 큰 코 다치기 쉽다. 1시간 코스인 굽이 굽이 산길을 따라 가보면 소나무 등 군림을 만나볼 수 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등은 이 마을의 전설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산행으로 지친 몸을 바위에 기댄 쉼이면 산과 바다가 어우러져 뿜어내는 신선한 짙 내음이 코끝을 찌르는데, 절로 기운이 난다. 산에서 바라본 앞바다의 크고 작은 섬들은 마치 동화 속 스머프들이 사는 버섯 집들을 연상케 한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섬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흑어 작은 스머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설렘이 가는 발길을 붙잡는다.

버섯 집들 사이로 가라앉은 낙조는 그 경관만으로도 신비로운 충격을 준다. 섬과 섬 사이로 홍조 뿜 동근 얼굴을 감추는 낙조를 바라보고 있자면 예전에 일몰을 지켜봤던 그 섬인가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계절마다 낙조의 위치가 바뀌는 탓이다. 단골 관광객들은 이곳을 찾을 때마다 산을 찾아 일몰의 비경을 자신의 카메라 속에 담기 바쁘다.

청룡마을은 조그마한 포구에 가오리 등 각종 생선을 낚아 올리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하지만 사계절 내내 녹음이 가득해 해양수산부 선정 ‘아름다운 어촌 100선’에 꼽히는 등 일년 내내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중 개매기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최소 1만 명 이상이다. 개매기는 갯벌에 그물을 쳐 놓고 밀물 조류를 따라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갇히도록 하는 전통 고기 방식으로, 체험객들은 그물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 물이 빠진 갯벌 위 그물에 갇힌 송어·농어·돔 등을 맨손으로 잡은 뒤 바로 회로 먹을 수 있다. 체험비는 성인 기준 5000원.

특히 이 마을 해안은 마을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양팔 벌려 껴안는 모양새다. 개흙과 모래가 적당히 섞인 혼합 갯벌이 형성돼 있는 탓에 바지락과 고둥을 캐는 갯벌 체험도 편히 즐길 수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찾아오시는 길

전남 진도 청룡어촌체험마을 (진도군 진도읍 청룡안길 130-12)

### ▶ 승용차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서영암IC → 호동교차로 → 녹진교차로(진도타워 방면) → 군내로 → 청룡마을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동서울터미널 → 진도공용버스터미널 → 진도-전두, 한의 농어촌버스(약 48분) → 청룡리정류장 하차(도보 2분)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 전국 최고의 어촌마을 만들 것”

### 김주봉 어촌계장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찾는 어촌마을로 만들어 전국의 롤 모델이 되는 마을로 거듭나겠습니다.”

진도군 의신면 청룡마을 물양장에서 만난 김주봉(52) 어촌계장은 향후 마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32가구·100명이 거주하는 이 어촌은 수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마을이었으나, 어촌체험 시범마을로 지정되면서 ‘잘 사는 어촌’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전국 최고의 냉수대지역을 끼고 있는 이 마을 개매기 행사에는 수년 전부터 해마다 최소 1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어민들은 전복·농어·다시마·가자미 등 수산물을 판매해 잡獲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 관광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등을 꼼꼼히 살핀 덕분이다. 이 마을에서 주로 잡히는 가자미는 관광객들의 입소문이 타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됐다. 가자미 잡이 철이 되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다.

마을 주민들은 이어지는 관광객들의 발길에도 즐거운 비명을 지를 법도 하지 만 결코 자만하지 않는다.

주민들은 전국의 다양한 어촌마을 등을 견학하면서 마을에서 운영 중인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이중 하나가 마을 뒤 야산의 산책로 정비다. 이 마을은 낙조가 아름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산책로 정비를 통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일몰·일출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어촌계장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전국 최고의 어촌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다”면서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마을을 찾는다면 그 만큼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주민 모두가 관광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한다. 그래야만 관광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고의 어촌마을이 됐다는 자만심에 빠지기 보단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내실화해 전국 어촌의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냉수 해역서 잡힌 ‘서촌 가자미’는 부르는 게 값 거친 조류서 키워낸 전복·다시마·모자반도 유명

### 청룡마을 특산물

진도 청룡마을 특산물로는 전복, 가자미, 해조류 등이 있다. 청룡마을 앞 바다는 우리나라 몇 안되는 냉수대 지역이다. 이곳에서 자라는 전복은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살이 단단하고 그 맛이 고소하며 단맛이 난다고 한다. 가자미는 ‘서촌(서쪽마을어촌)가자미’로 전국적

으로 알려져 있다.

냉수대 지역에서 잡다보니 다른 지역 가자미보다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아 마을 어민들이 잡자마자 바로 팔려나가 웬만해선 맛보기가 힘들다고 마을 주민들은 말한다. 조류가 세고 개펄이 풍부하다보니 해조류인 다시마, 모자반도 유명하다. 특산물 구매 문의 : 김주봉 어촌계장 010-2060-5479



청룡마을 어민이 전복양식장을 둘러보기 위해 어선에 오르고 있다.



마을 앞 개매기 체험장. 매년 1만명 이상이 찾아 체험을 즐긴다.



# 해남 사구마을

## 물 좋고 풍경 좋았던 그 곳, 활기 되찾기 프로그램 한창

1.5km 고운 모래의 백사장  
곰솔숲·잔잔한 청정 해역  
얕은 수심 물놀이 안성맞춤

그물 고기잡이·선상낚시  
전복 껍질에 다육이 심기  
체험프로그램 다채

깊어진 하늘이 맑게 펼쳐지고 산들바람이 살랑거리며 가을이 다가섰다. 계절이 바뀌는 길목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 호젓한 산과 바다를 찾아 초기음의 정취를 맛보는 것도 삶의 또다른 흥취를 느끼게 한다. 사구마을이 바로 그 곳.

해남 시가지에서 남쪽으로 13번 국도를 타고 가는 길. 특히 북평면~송지면 구간의 국도 77호선 구간은 일명 '땅길 가는 길'로 다도해의 절경을 끼고 돌아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돼 드라이브코스로 유명하다.

땅길 가는 길 중간에 자리한 사구마을은 고운 모래가 깔려있는 백사장이 1.5km나 뻗어있고 해변 뒤쪽으로 곰솔숲이 깊은 그늘을 드리우며 청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앞바다에는 완도 백일도와 흑일도가 손에 잡힐 듯 가깝고 산너머에는 땅길 전망대가 아련하다. 특히 해질녘 멀리 땅길 사자봉 일편으로 지는 석양은 다도해의 섬들을 붉게 물들이며 신비감을 더해준다.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뉜 마을은 농촌과 어촌의 정취를 다 느껴볼 수 있는 자연교과서다.

아랫마을 앞바다는 바다의 청소부로 불리우는 잘피가 해안 곳곳 서식하고 있어 청정해역을 인증한다. 주산물은 전복과 멸치. 조류 흐름이 적당하고 해조류가 풍부해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정갯벌이 키운 전복은 비린내가 없고 감칠맛이 일품이다. 가구당 평균 생산량은 6~7t. 10~12월은 본격 출하철로서 이 시기에 거두는 수익은 대기업 직원이 부럽지 않다. 또 수심이 얕고 파도가 잔잔해 여름철 물놀이에도 해변가 산책에도 더할나위 없다.

윗마을은 병풍처럼 수려한 달마산이 사시사철 신록을 선물한다. 두륜산, 대둔산을 거쳐 이르는 산맥의 서늘한 기운을 바람이 그대로 전해주고 눈·발에 비와 공이 어울려 가며 소박한 농촌 풍경을 선사한다. 주산물은 고추, 깨, 마늘 등 밭작물의 비중이 크다.

이처럼 물 좋고 풍경 좋은 사구마해변은 20년전만해도 '잘 나가'는 곳이었다. 북적이던 곳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어촌계는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활기 넘치는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물을 넓게 펼쳐 물고기를 포획하는 후



1.5km에 이르는 고운 모래해변을 자랑하는 사구마을은 양식장 너머 다도해가 끝없이 펼쳐지고 병풍처럼 수려한 달마산이 사시사철 신록을 선물한다.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찾아오시는 길

전남 해남 사구미어촌체험마을 (해남군 송지면 사구미길 20)

#### ▶승용차

반포IC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학산IC(영암·해남방면) → 월산교차로(진도·해남방면) → 해남교차로(완도·해남방면) → 고담교차로(신방리방면)

▶ 고속버스센트럴시티터미널 →해남버스터미널 → 해남-사구미 농어촌버스(약 2시간 8분) → 사구정류장 하차(도보 4분)

리그를, 2인 1조로 고기를 몰아가는 사발질, 선상낚시, 바지락캐기, 개매기 채취, 전복화분만들기 등이 그것이다.

바지락캐기는 1인당 5000원,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개매기 체험은 1만원이다. 어촌계가 해마다 치어 방류사업을 해 앞바다는 그야말로 황금어장이다. 숭어, 전어, 감성돔, 우럭, 장어 등 맘만 먹으면 월척이다. 장비는 어촌계에서 대여 가능하다.

특히 전복 껍질에 다육식물을 심는 화분만들기는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 코너. 다육이의 생육을 위해 전복 껍질에 구멍을 뚫고 전용 흙을 담아 심으면 되는 간단

한 과정이지만 아이들은 교과서 밖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오감을 만족시킨다.

마을 곳곳에는 주차장, 공중화장실, 식수대, 슈퍼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스쳐가는 방문객들도 머물게 한다. 곰솔숲 너머로 조성된 5개 동의 오토캠핑장, 3곳의 펜션은 최근 지어져 깨끗하고 시설이 좋다. 펜션 요금은 성수기에도 6만원. 민박은 시설은 갖춰져 있으나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 운영되고 있다. 특산물 구매와 캠핑장 예약은 사무장 휴대폰 (010-4733-89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 인근엔 둘러볼 곳도 많다.

걸어서 5분 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원앙어선 선장이 40년간 직접 채집했다는 해양생물을 볼 수 있다. 화석류, 수중세계의 산호, 물고기, 상어들을 만날 수 있는데 생물 모형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어 꼬마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땅길조각공원은 미술관과 야외 조각공원을 갖추고 있는데 길 끝에 이르면 탁 트인 다도해와 작품들이 빛내는 하모니가 일품이다. 사진 촬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또 땅길전망대는 모노레일을 타고 옥빛 바다를 굽어보며 오를 수 있고, 느림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옛길을 갈두산 중턱에 자리 잡은 주차장에서 올라갈 수도 있다. 전망대 인근엔 먹자촌이 형성되어 있어 남도의 산해진미도 맛 볼 수 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마을, 무르익기 시작한 가을은 두 눈을 어디에 두어도 향긋하다.

직접 캔 조개로, 물고기로 먹을거리를 만들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에 감사하는 시간, 그 때 순간은 감동이다. 메뉴는 다양하니 입맛대로 골라드시라. 무얼 먹어도 자연을 그대로 품을 것이니...

/임수영 기자 swim@kwangju.co.kr

## “오시기만 하세요, 재미는 책임집니다”

### 조민철 어촌계장

해변에 전구...빛 축제 예정

바다 위엔 250m 부장교

“깨끗한 바다와 갯벌, 고운 모래해변까지 천혜 경관을 가진 우리 마을은 사시사철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최고 휴양지입니다”

해남 송지면 사구마을의 어촌계장을 맡고 있는 조민철(38)씨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넘쳐났다. 조 어촌계장도 한때는 일류 일식 요리사를 꿈꾸며 서울살이를 하던 도시인이었다. 7년째 고군분투하다 전복 출하일을 도와 달라는 아버지의 전화 한 통이 인생을 바꿔 놓았다.

“주말에 잠깐 일을 돕고 올라갔는데 전복이 걱정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주방장을 목전에 두고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과감히 서울생활을 정리했다. 돌아와 어느덧 10년. 일가를 이룬 그는 마을을 휴양과 놀이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조 어촌계장은 마을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선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추진중인 일이 빛 축제. 해변에 전구를 설치해 야간에 빛으로 반짝이는 마을 풍경을 관광상품화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에 이야기를 입히고 편리성을 갖춘다면 예전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

“생각을 현실화 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시급한 과제로는 운영비 확보, 전문가 컨설팅, 새 교육프로그램, 벤치마킹이 가능한 마을을 견학하는 일이다”며 “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곧 바다에 250m 부장교가 설치돼 갯벌 관찰과 아름다운 심해를 더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그는 “오시기만 하세요. 마을에 머무시는 동안의 재미는 책임지겠다”며 밝게 웃었다.

/임수영 기자 swim@

## 자연산 같은 전복·담백하고 고소한 멸치

### 특산품

해남 사구마을 앞바다는 전복 양식장이 많은 완도와 마주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청정해역인 사구미 앞바다에서 싱싱한 미역과 다시마를 먹여 자연산에 가까운 환경에서 키우고 있다고 한다. 특히 사구마을 앞바다는 바닷물을 정화하는 능력에 뛰어난 잘피가 많이 서식하는 청정해역으로 무엇보다 전복이 건강하고 살이 두툼하며 오독오독하고 쫄깃한 식

감이 좋아 인기다. 사구마을 멸치는 ‘바다의 숲’ 잘피 군락에서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자라 깨끗하다. 마을주민들이 낭장망이라는 원뿔 모양의 작은 그물로 조금씩 잡고 있다. 잡자마자 바로 살아 내 뿔뿔에서 햇살과 해풍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짜지 않고 담백하며 고소한 맛이 뛰어나다. 조금씩 잡기 때문에 예약을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

사구마을 특산물 구매 문의: 나은주 해남 사구마을 사무장 010-4733-8975



▲사구마을 전경은 한폭의 그림. 아랫마을은 고깃배가 출어를 기다리며 고즈넉한 어촌 풍경을, 윗마을은 농작물이 어울려가며 정겨운 농촌풍경을 선사한다.

▶앞바다는 조류 흐름이 적당하고 해조류가 풍부해 전복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청정갯벌에서 풍부한 영양분을 먹고 자란 전복은 자연산이나 다름없다.





# 맛에 빠지고 멋에 취하고...먹거리·볼거리 천지

보리새우 등 특산물 먹고 해안서 바라보는 낙조 일품

맨손 고기잡기·갯벌 체험 즐기고 해수찜서 피로 썩~

## 찾아오시는 길

함평 석두어촌체험마을 (함평군 함평읍 주포로 600-29)

### ▶승용차

한남IC → 경부고속도로 → 논산천안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영암, 함평방면) → 양림교차로(돌머리해변 방면) → 주포로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함평공영터미널 → 500번 농어촌버스(약 28분) → 석두정류장 하차(도보2분)

### ▶열차

용산역/영등포역 → 함평역 → 100번 농어촌버스(약 21분) → 함평공영터미널 하차 후, 500번 농어촌버스(약 28분) → 석두정류장 하차(도보2분)

나비축제, 국향대전, 돌머리 해수욕장, 용전사, 초가 원두막, 해수찜...

함평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석화, 보리새우, 세발낙지 등 먹을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관광 외에도 맨손 고기 잡기, 캠핑 등 다양한 어촌체험활동을 하고 싶다면 석두마을로 떠나보자.

석두마을은 광주에서 자동차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마을 앞에는 돌머리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다.

110여 가구에 390여 명이 사는 석두(石頭·돌머리)마을은 서해안에 맞닿은 육지의 끝이 바위로 되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함평만 생태보존 기념비’. 지난 2010년, 21세기 환경의 시대를 맞아 구시대의 개발계획 철회를 기념하고 생태계보존과 문화, 경제가 어우러진 지속 가능한 새로운 발전모형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마을주민들이 직접 기념비를 세웠다.

실제로 이곳 돌머리 해수욕장에 가면 기묘한 갯바위들이 울퉁불퉁 솟아 있고 아름다운 소나무들을 볼 수 있다. 폭 70m 길이 1km의 백사장이 있어 일광욕에도 좋다. 해변 위쪽으로는 국토교통부 해안 누리길 중 하나인 7.6km 구간의 돌머리 해안길이 펼쳐진다.

맑고 얕은 바닷물, 해변 끝의 울창한 숲, 해안에서 바라보는 낙조 등으로 유명한 이곳에는 인공풀장도 있다. 언뜻 바서는 풀장인지 해수욕장인지 알 수 없는 커다란 물웅덩이이다. 바다 같기도 한데, 바닷물은 이미 저 멀리 썩 물러나 있는 상태다. 이곳의 바다는 썰물 때 바닷물이 해안에서 멀리 썰려 내려간다. 그래서 썰물 때도 계속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풀장을 만들었다.

함평의 돌머리 해변 근처에는 수평선 끝까지 온통 갯벌로만 이루어진 갯벌 체험장도 있다. 갯벌에는 해조류와 낙지·게 등이 많아 찾는 이로 하여금 갯벌 체험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게 한다.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 해수욕장보다도 더욱 인기가 좋다.

3월~10월에는 개매기 체험을, 1월~12월에는 바지락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7월~8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는 참돔배잡어잡기와 바지락개기가 인기다.

또 갯벌탐방로(길이 405m)가 최근 완공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물이 빠지면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며 게, 바지락 등 해조류가 살아 숨쉬는 갯벌이 속살을 드러내며 광활하게 펼쳐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목재데크인 탐방로에 LED 조명을 입혀 다양한 색채로 밤바다를 수놓는다. 해변을 소나무 숲이 둘러싸고 있다. 그 소나무 숲 속에, 초가지붕을 씌운 정자를 들여앉힌 것도 이색적이다. 오두막 하나를 빌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한나절, 또는 반나절 동안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5분 거리에는 정통 해수 찜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해수 찜은 소나무 정자로 가



함평만에 자리한 ‘석두마을’. 함평 유일의 해상교통로가 있는 석두에는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다. 석두마을은 해수찜과 인공해수 풀장으로 유명하며, 바지락 캐기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갯벌에는 조개, 해조류가 많아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열한 유황 석을 쏘, 삼 돛 초, 뽕뽕이 풀 등의 약초가 담긴 해수탕에 넣어 대워진 물로 찜질하는 것. 뒤돌 아궁이에서 갓 구워낸 유황 석을 넣은 탕의 온도는 70~80도. 때문에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수건에 물을 적서 찜질한다.

이곳의 돌은 유황과 알칼리 성질이 많이 함유된 산성암맥이다. 불에 구우면 서로 엉겨붙을 정도로 유황성분이 많고, 가열된 돌은 알칼리염을 생성하고 게르마늄 용출을 도와 살균작용, 피부질환, 신경통, 당뇨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나면 피부가 끈적끈적해지게 마련. 하지만 해수찜 후에는 오히려 피부가 매끈해진다. 찜질 후에는 샤워를 하지 말아야 효과가 오래간다.

청정해역인 이 섬은 석화와 바지락 등이 매우 유명하다. 이곳에서 채취되는 석화는 종패를 뿌리지 않는 자연산이다. 이곳 갯벌은 청정갯벌이라 게르마늄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주변에는 인공폭포, 오토캠핑장, 야영

장, 주차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이 있을 뿐 아니라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펜션 형 민박시설도 있어 하룻밤 묵고 가기에 제격이다. 돌머리해안민박, 돌머리 예쁜집 민박, 서해민박 등 민박 내·외부 전경으로는 탁트인 바다가 마음마저 시원하게 해준다. 이용가격은 평균 5만원부터 시작이며 최대 80명이 묵을 수 있는 민박도 있어 단체 여행에도 손색이 없다.

지난 여름에는 소원을 염원하는 풍등 날리기, 참돔배잡어잡기 등의 행사와 함께 문화공연도 열려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

손흥주 석두마을 어촌계장은 “지난 여름 풍등날리기 등의 행사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맨손 고기 잡기 체험행사도 열린다. 올해 말 오토캠핑장 개장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바닷물을 이용한 해수치유센터도 완공할 예정”이라며 “볼거리, 즐길 거리 많은 석두마을을 많이 찾아달라”고 말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길이 405m의 갯벌탐방로.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걷기 쉽도록 목재데크로 조성됐다. 밤이면 LED 조명이 반짝여 아름다운 밤바다 경관을 만들어낸다.

## “오토캠핑장·낙지목장 하반기 개장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마을 될 것”

### 손흥주 어촌계장

“우리 마을은 안 유명한 것이 없어요. 돌머리 해변, 해수찜으로 유명하죠. 또 세발낙지와 보리새우는 빼놓을 수 없는 별미예요. 또, 바지락 캐기 등 체험프로그램도 운영중이라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 같은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함평군 함평읍 석두마을 손흥주(62) 석두어촌계장은 누구보다 마을의 관광 자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손 계장은 “함평 8경 등 유명한 볼거리, 관광지가 많고, 특히 우리 마을은 돌머리 해수욕장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며 “개매기잡기 체험, 바지락 캐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중이지만 무엇보다도 최근 조성해 놓은 갯벌탐방로가 자랑거리다”고 소개했다.

최근 돌머리 해수욕장에 돌머리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405m에 이르는 갯벌 탐방로를 설치했다.

손 계장은 “마을의 수익을 높이고 주민들이 더욱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만 쉽지 않다”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은 국가 지원을 더 늘려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을 꺼냈다.

관광자원만으로는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그는 6차 산



업에서 답을 찾고 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석두마을의 석화, 바지락, 낙지 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반농반어 마을의 장점을 살려 고구마,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도 함께 파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올 하반기에 오토캠핑장과 낙지목장이 개장해요. 또, 10월에는 맨손고기잡이 축제도 열리죠. 이러한 관광자원 개발뿐 아니라 6차산업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 갯벌서 자라 향 좋고 식감 쫄깃 자연산 석화 유명 세발낙지·참고둥·바지락 등 전국적으로 맛 인정

### 석두마을 특산물

함평 석두마을 특산물로는 석화, 세발낙지, 참고둥, 바지락이 있다. 석화는 전부 자연산이다. 마을주민들이 갯바위에서 채취한다. 미생물과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갯벌에서 자라기 때문에 향이 강하고 식감이 쫄깃해 많이 찾고 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석두마을 석화는 맛보기 어렵다.

석두마을 참고둥은 알이 통통하고 간에 좋다고 소문이 나 건강 때문에 찾는 이가 많고, 바지락도 알이 굵고 식감이 좋다. 석두마을 앞 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 세발낙지에 육질이 탄력있고 타우린 성분도 풍부해 전국적으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다.

특산물 구매 문의 : 김진숙 사무장 010-5024-5454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여·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